

## 고용노동부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고용서비스사업/취업지원
- 소관부처/담당부서 :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 '21년 평가등급 : 양호

### 1 사업 주요 내용

- (사업 목적)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취업계획수립 → 직업능력향상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
- (사업내용) '21년 목표: 10,000명(1유형 8,000명, 2유형 2,000명)
  - (1유형) 구직 장애인에게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1~2단계 참여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등 지급
    - \* 참여수당: 1단계 최대 250천원, 2단계 월 최대 284천원(최대 12개월), 취업성공수당: 300/400/800천원(3·6·12개월 근속조건)
  - (2유형)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취업준비위주\*의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1~2단계 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및 구직촉진수당 등 지급
    - \* 신임경비교육 특수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2유형)
    - \*\* 참여수당: 1단계 최대 250천원, 2단계 월 최대 284천원(최대 12개월)  
취업성공수당: 300/400/800천원(3·6·12개월 근속조건),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50만원(3개월)
- (예산/재원) 16,985백만원('21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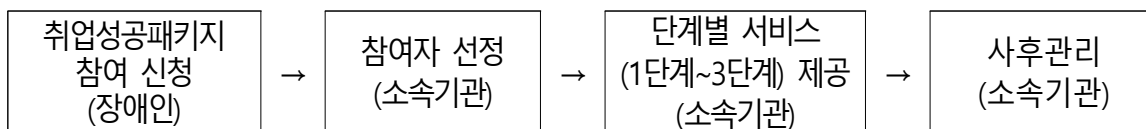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A)	추경	결산			(%)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14,921	13,855	13,855 (100.0)	16,985	2,064	13.8

□ (추진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 제19조

□ 지원대상

- (1유형) 만 18세 이상 구직 장애인
- (2유형) 만 18~69세 이하의 저소득층(중위소득 50%이하) 구직 장애인

□ 전달체계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 목표 물량을 초과하는 참여수요의 증가 및 저소득층 증가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물량을 9,000명에서 10,000명으로 확대
  - \* 저소득층 2유형 1,000명 확대, ('20년) 1,000명 → ('21년) 2,000명
- 기본적인 생계보장에 못 미치는 현행 저소득층(2유형) 구직촉진수당을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비 수준으로 인상(30만원 → 50만원)
  - \* 구직촉진수당 단가 인상, ('20년) 30만원×3개월 → ('21년) 50만원×3개월

##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자 현황)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의 2020년 참여자는 총 8,438명으로 고용서비스 전체 참여자의 0.6%, 취업지원 유형 전체 참여자의 0.8%

- (성별) 본 사업 참여자 중 남성은 61.9%(5,225명), 여성은 38.1%(3,213명)로 남성 참여자의 비율이 높음

- (연령별) 본 사업의 참여자 중 청년이 47.2%(3,982명)로 가장 많고, 중년 30.1%(2,541명), 장년 19.1%(1,609명), 고령 3.6%(306명) 순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고용서비스 전체	1,325,058 (100)	463,784 (35.0)	861,144 (65.0)	538,237 (40.6)	383,290 (28.9)	299,872 (22.6)	101,177 (7.6)
취업지원 전체	1,017,639 (100)	341,169 (33.5)	676,414 (66.5)	377,175 (37.1)	331,244 (32.6)	236,242 (23.2)	70,630 (6.9)
장애인취업성 공패키지지원	8,438 (100)	5,225 (61.9)	3,213 (38.1)	3,982 (47.2)	2,541 (30.1)	1,609 (19.1)	306 (3.6)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 정량지표별 결과

(단위: %, 일)

	취업률 (180일 이내)	알선 취업률 (180일 이내)	고용 유지율 (180일 이상)	취업 소요기간	임금수준
고용서비스 전체	42.2	27.3	57.8	113.7	79.5
취업지원 전체	42.2	27.3	57.8	113.7	79.5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58.3	28.3	61.2	79.4	69.4

## □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점검		
고용서비스 전체	4.12	4.10	4.19	4.29	4.15	4.08	4.16	4.26	4.16	4.02
취업지원 전체	4.08	4.07	4.16	4.24	4.11	4.07	4.15	4.23	4.12	3.98
장애인취업성공 패키지지원	4.10	4.09	4.16	4.25	4.08	4.05	4.16	4.27	4.15	4.00

※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 정성지표별 평가결과

- (사업의 중요성)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대상자인 저소득층 구직장애인에 대한 소득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강화는 국민취업지원의 대상자와 유사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
  - (국정과제) 국정과제에서 제시하는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과제번호 18)”에서 맞춤형 취업지원에 해당.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장애인 개별 특성 및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언론보도)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에 대한 언론보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소개
    - \* 2020.4.9. 코로나발 고용한파 대응 나선 장애인공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운영. 중위소득 50%이하 대상. 최대 150만원 취업성공수당. 일자리확대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일자리사업성과
  - (취업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취업률은 미참여자 집단의 취업률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으로 보고됨
    - \* 연도별 취업률: (2018년) 58.6%, (2019년) 58.7%, (2020년) 58.8%
  - (구직장애인 취업의욕 및 역량강화) 1단계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료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2단계 직업훈련 참여 인원 지속적으로 상승
    - \* 1단계(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료율: (2018년) 97.2%, (2019년) 97.8%, (2020년) 98.6%
    - \* 2단계(직업훈련) 참여인원: (2018년) 4,884명, (2019년) 6,292명, (2020년) 6,397명

## ○ 운영의 적절성

- (사업계획 대비 실적)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업무가 제한되었지만 예산집행을 완료하였고 실적집행률도 높은 수준을 달성
- (목표 달성) 취업률도 목표를 달성
-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온라인서비스를 확대. 온라인으로 상담서비스와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코로나로 인한 결석에 대해 출석인정 및 훈련 수당 지급 일수에 포함하여 대응함
- (상담원 역량강화) 상담원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역량별 교육훈련 체계를 설계. 20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직무교육으로 총 11회 과정을 운영하고 204명이 교육에 참여
  - \* 직무공통과정과 연차(2년이상, 1년이상, 1년이하)에 따라 직무전문과정을 구분하여 교육 실시
  - \* 1인당 교육시간 증가 (2019년) 13.2H → (2020년) 41.4H 상승

## ○ 제도개선노력

- (전년도 재정지원 평가결과) 전년도에 평가결과에서 제시한 ‘장애인 대상 직업훈련과정 및 학원 개설’에 대한 저소득층 구직장애인을 위한 특화 유형을 신설 및 운영하여 저소득층 참여자 수와 취업률이 상승한 성과를 개선실적으로 보고함
- (알선기간 확대) 취업알선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여 취업성으로 연결
-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 완화)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을 65세 이상 고용보험 비적용대상자도 근로 확인 시 지급하도록 요건 완화. 취업률 상승효과를 기대